

과채류 컨설팅에 대한 농가,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 간 견해 비교 분석

김호철¹ · 최준혁¹ · 정석기¹ · 이용범² · 배종항^{1*}

¹원광대학교 원예 애완동식물학부, ²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Comparative Analysis of Opinions about Practicing Works among Farm, Consultant, and Consulting Company in Consulting Field of Fruits and Vegetables

Ho Cheol Kim¹, Jun Hyuk Choi¹, Sek Gi Jung¹, Yong Beom Lee², and Hyang Jong Bae^{1*}

¹Division of Horticulture and Pat Animal-Plant Science, Wonkwang University, Iksan 570-749, Korea

²Departmen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survey on fruit and vegetables farms (FM), consulting companies (CC), and the consultants (CT) to investigation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s in consulting part of horticulture. In results of survey on FM, FM chose 'necessity' on consulting for learning of production skill and 'field visit' in means of consulting. FM had a low trust on experience and knowledge of CT and answered that FM had not enough time for consulting by reason of over-work of CT, chose 'necessity' on crop registration system. In results of common questions among FM, CC, and CT, same answer of questions were term of contract (answer: yearly contract), means of consulting (answer: visit), consulting time per a visit (answer: 2~3hours). Different answer between supplier (CC, CT) and consumer of consulting were decision method of contract price (answer: provisional contract ≠ contents and the quality of consulting), percentage of government subsidy (answer: propriety ≠ step-up).

Key words : actual conditions, consulting, fruit and vegetables, survey

서 언

최근 컨설팅 분야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차후 유망 직종으로까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농업 컨설팅 산업은 타 주요 산업에 비해 아주 영세한 편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농업 컨설팅 분야는 기본적으로 생산 컨설팅, 병충해 컨설팅 및 재무회계 컨설팅으로 분류되었고, 최근 마케팅 분야도 접목되고 있다. 국내의 농업 컨설팅 도입 초기에는 축산분야에서 활성화 되었고, 효과도 높은 편이었다(Kim 등, 2001; Choi, 2002; MFAPP, 2005). 그러나 너무 많은 컨설팅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Kim, 2002)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다(Lee, 2007). 원예 분야에서는 시설 원예 분야에 치우쳐 있고, 대부분 생산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과종 및 품종도 한정적이다. 또한 소규모 농가는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기술 수준이 높은 농가에 비해 오히려 컨설턴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특히 생산과 병충해뿐만 아니라 재무회계나 마케팅 분야까지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컨설턴트는 생산 컨설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Lee, 2003).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의 컨설팅 비용 부담(Lee, 2003)과 컨설팅업체의 영세화에 따른 세부 분야의 전문컨설턴트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Kim, 2001). 이에 반해 농업선진국들은 농가 스스로 세분화된 컨설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

*Corresponding author: bae@wku.ac.kr
Received August 18, 2009; Revised September 3, 2009;
Accepted September 14, 2009

에 매우 다양한 부분까지 전문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물며 농업 관련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Lee, 2007). 이러한 컨설팅 산업의 차이는 현재 국내 시설원예의 생산성과 품질이 유럽의 시설원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러한 원인들이 농가에게 국내 컨설팅 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원예 산업, 특히 시설원예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장에 적합한 전문농업컨설팅업체의 확대, 농업의 자립도를 증대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컨설팅 산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컨설팅 산업의 주체인 농업경영체(재배농가),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의 견해를 분석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컨설팅 산업의 체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컨설팅 산업의 주체인 농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 실태를 파악하여 차후 상호보완적인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 과채류(파프리카, 토마

토,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국내 시설 재배 농가, 과채류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대표)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국내 재배 농가는 128개 농가였다. 총 설문 농가 중 총 문항 당 답변률이 낮은 농가를 제외한 121 농가 중 무작위로 파프리카 농가는 18곳, 토마토 농가는 38곳, 딸기 농가 등 100농가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컨설팅 산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컨설팅 업체 3곳과 컨설턴트 9명, 그리고 네덜란드의 컨설팅업체 3곳, 컨설턴트 3명을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농가에 대한 설문 문항은 재배자 이력, 재배 유형 등 5항목, 컨설팅을 받고 있는 분야, 컨설팅 업체 및 컨설턴트의 문제점 등 컨설팅 실태와 걱정 방법을 13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컨설턴트에 대한 설문 문항은 컨설턴트의 이력, 급여체계 등 6개 항목, 컨설팅 담당분야를 비롯한 컨설팅 실태와 걱정 방법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컨설팅업체에 대하여는 자산 규모, 컨설팅 지원분야 등 3항목, 컨설턴트의 보유수, 선발 기준, 컨설팅 적정 방법 등에 대한 21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3자 모두 공통사항으로 국가 지원 보조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2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SPSS 11.5 버전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별 문항내용.

구분	문항 내용		
	농가	컨설턴트	컨설팅업체
기본항목	○ 연령, 학력, 경력, 작물, 재배유형	○ 연령, 학력, 경력, 적정학력, 현 연봉 및 적정연봉, 급여형태	○ 회사유형, 자산규모, 사업분야
세부항목	○ 컨설팅분야, 관련교육, 컨설턴트필요성 및 이유, 컨설턴트선정방법, 컨설팅계약기간, 월적정회수, 회당적정시간, 계약금결정방법, 컨설팅수단, 컨설팅시 중점분야, 컨설팅 및 컨설턴트 문제점,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생산이력관리시스템 필요성	○ 컨설팅활동 적정연령, 담당분야, 컨설턴트자격조건(농림부인증), 관련기관의 연수 및 적정회수, 어학능력, 컨설팅 적정계약방법, 1인당 월적정농가수, 월적정회수, 회당적정시간, 계약금결정방법, 컨설팅수단, 컨설팅시 어려운점,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 전문컨설턴트보유수, 컨설턴트적정연령, 컨설턴트적정학력, 컨설턴트자격조건(농림부인증), 관련기관의 연수 및 적정회수, 컨설턴트의 어학능력, 컨설턴트의 1인당 연 적정실적, 수주방법, 컨설턴트 충원방법, 중견컨설턴트 스카우트이유, 컨설턴트채용시고려점, 컨설턴트의 필요교육분야,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분야, 컨설턴트의 최소현장경험, 농가와 계약방법, 월적정회수, 회당적정시간, 컨설턴트 1인 월적정농가수, 계약금결정방법, 컨설팅수단,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공통항목	농가 보조금 비율, 정부의 향후 지원 방향		

결과 및 고찰

1. 국내 농가,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 간 설문 실태 및 비교 조사

국내 과채류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그

림 1, 아래 '그림 3'의 공동항목 제외),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습득이라고 답한 농가가 85.7%, 컨설팅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농가는 14.3%였다. 이는 전문적인 작물의 생리를 이해하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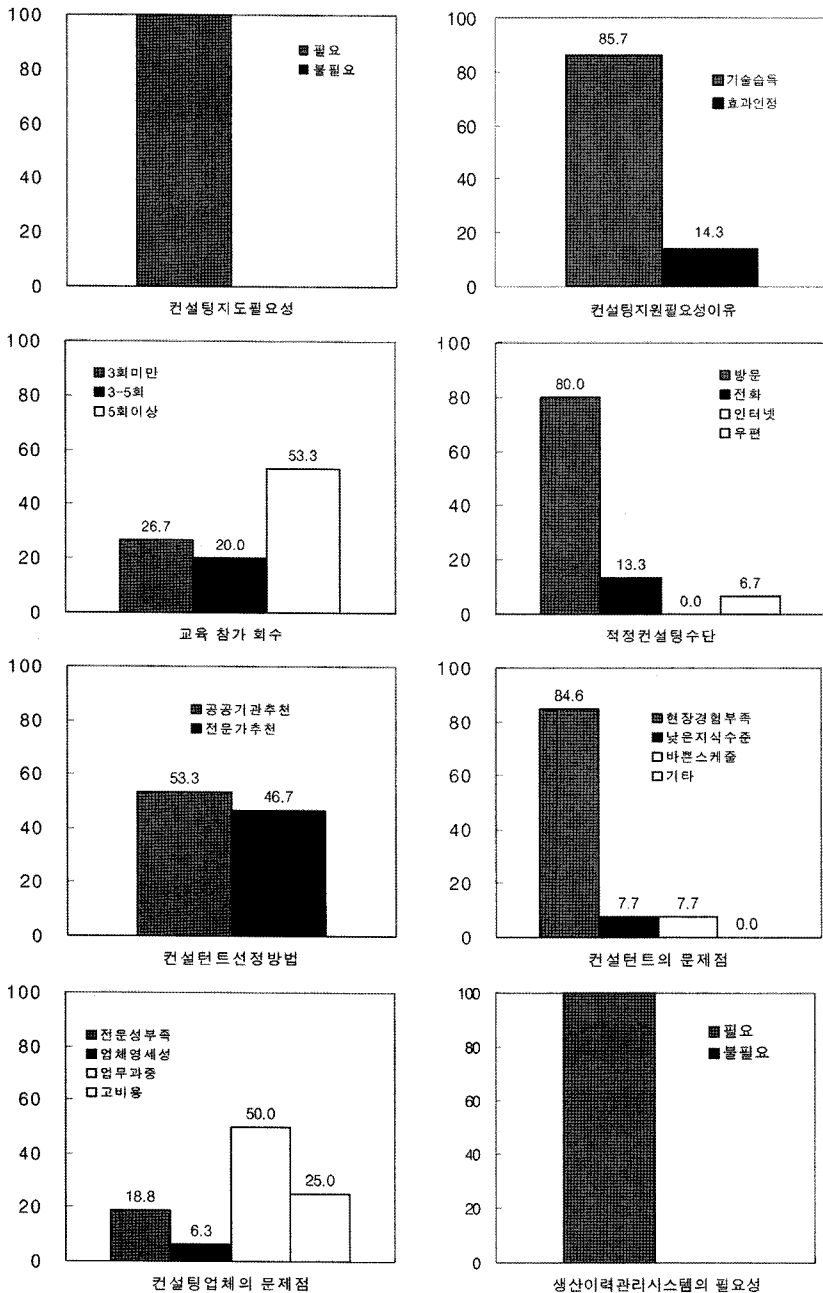


그림 1. 농가의 주요 설문 결과.

과채류 컨설팅에 대한 농가,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 간 견해 비교 분석

에 대한 적절한 재배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를 원하는 의견으로 보이나(Choi, 2002), 다른 한편으로는 차후 컨설팅 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Lee, 2007; Lee, 2003). 재배관리에 대한 관련기관의 교육에는 모든 농가가 참여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5회/년이상 참가한다고 답한 농가가 절반이상으로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단(방법)으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방문 컨설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최근 농업선진국의 컨설팅 방법도 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격컨설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또한 국내에서도 필요하다(Oh와 Choi, 2000). 컨설턴트 선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나 측근의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 선정하던 과거와 달리 농가의 경영자 연령이 낮아지면서 컨설팅업체의 지명도나 컨설턴트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영주가 고령일수록, 조수입이 적을수록 컨설팅을 수용하지 않는 편이다(Lee, 2003). 그러나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는 농가의 대부분은 컨설턴트의 현장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지식수준이 낮거나 바쁜 일정으로 적절한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차후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고, 세부 분야별 컨설턴트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Kim, 2001). 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주어 컨설팅 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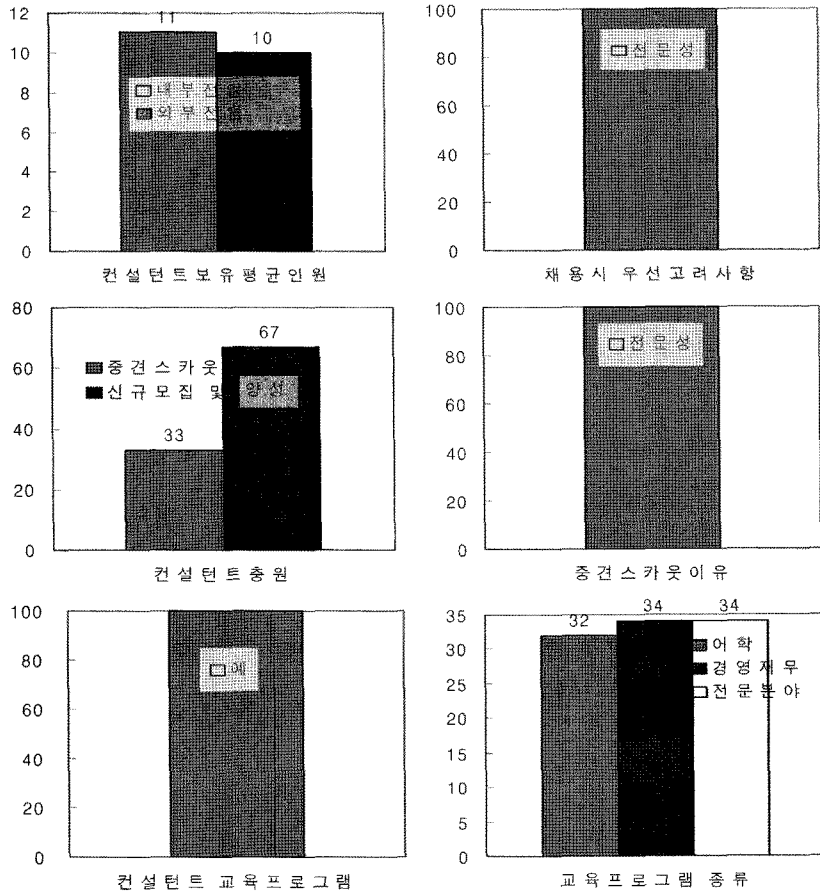


그림 2. 컨설팅업체의 주요 설문 결과.

생산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하여는 모든 농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유리온실과 같이 투자본이 많이 들어간 곳으로 소규모의 농가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컨설팅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누적되어 있지 않아 컨설팅을 지원받더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유럽의 시설원에 선진국들은 이러한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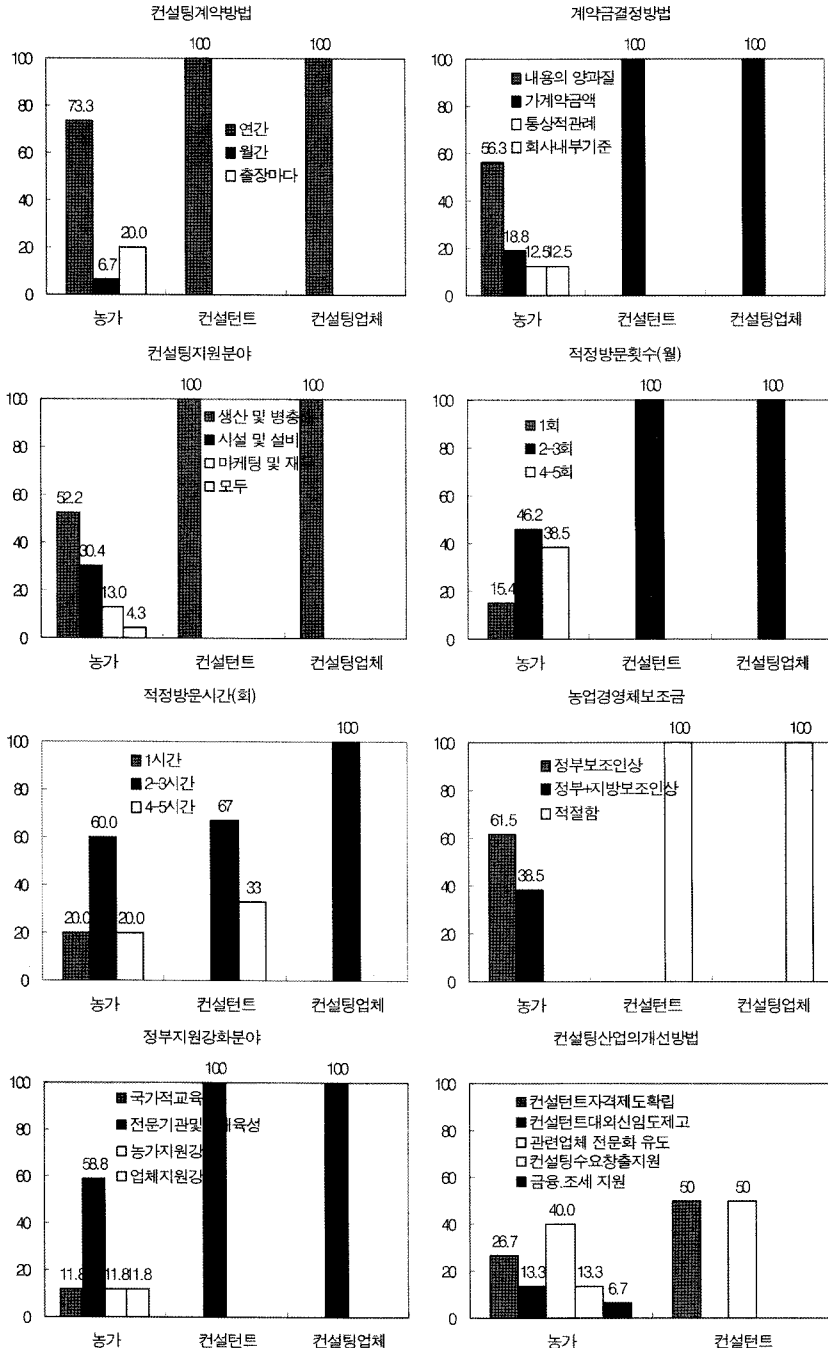


그림 3. 농가경영체,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에 대한 공통 설문 결과 비교.

컨설턴트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의 선진화, 저렴한 생산이력관리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컨설팅을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국내 컨설턴트에 대한 주요 설문 결과는 아래 '그림 3'의 공통항목에 대부분 나타내어 제외하였다.

국내 컨설팅 업체에 대한 주요 설문 결과(그림 2, 아래 '그림 3'의 공통항목 제외), 한 업체당 전문컨설턴트는 평균 21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절반은 회사 내에서 근무하였고 나머지는 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형태였다. 이러한 지역 내 배치는 컨설팅 대상자의 확대, 이에 따른 수입, 그리고 원거리 컨설팅 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컨설턴트 채용 시 업체 모두 전문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원 시에는 신규모집보다는 기존 현장경험에 의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견컨설턴트를 스카웃한다는 답이 다소 많았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학, 경영 및 재무, 전문분야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한다고 답하였다.

국내 농가경영체,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 간 주요 공통 항목의 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그림 3), 컨설팅 계약방법에서 컨설턴트와 컨설팅업체는 모두 연간 계약이 적절하다고 답하였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월 또는 출장마다 지급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답변의 차이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컨설팅 비용이 소득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연간 계약 시 작물 생육기 또는 매 컨설팅마다 컨설턴트의 지도 시간 등이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계약금 결정방법에서도 컨설턴트와 컨설팅업체는 상호 가계약 금액에 의해 결정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모두 답하였으나, 농가의 56%는 컨설팅 내용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분야로는 컨설턴트와 컨설팅업체 모두 생산 및 병충해 분야로 답하였으나 병충해 분야에는 다소 적고 대부분 생산기술 분야였다. 그러나 농가의 30%는 시설 및 설비(30%) 분야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생산 및 병충해 분야는 컨설팅의 base로 판단하고 시설 및 설비 분야, 즉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분야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컨설턴트의 월 방문지도 회수에서 컨설턴트와 컨설팅

업체는 모두 2~3회로 답하였고, 농가도 2~3회(46%)가 가장 답변율이 높았으나 4~5회(39%) 정도를 선택한 답변도 많아 현재 일부 농가에서는 컨설팅 비용 대비 컨설턴트의 방문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컨설팅은 연간 20회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되고 있다(Lee, 2007). 그리고 매 방문시 컨설팅 시간에 대하여는 3자 모두 2~3시간이 적절하다고 답변이 가장 높았지만, 일부 농가(20%) 및 컨설턴트(33%)는 4~5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는 농가의 컨설팅 회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농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와 컨설팅업체 모두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농가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 확대(62%), 또는 지방 보조금까지도 확대(38%)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현재 농업경영 컨설팅과 관련하여 대상 농가에 대한 총 사업비 중 중앙 정부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다(MFAFF, 2006a, b).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가의 컨설팅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조는 농가의 컨설팅에 대한 적극성을 다소 낮추는 역효과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영세 농가의 자금난을 일부 해소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차후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업체 및 컨설턴트의 육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다(Kim, 2001).

적 요

국내 주요 과채류 농가, 국내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 실태와 개선방향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농가는 생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문에 의한 컨설팅을 원하였다. 그러나 컨설턴트의 현장경험과 지식수준에 대하여는 신뢰성이 낮았다. 또한 컨설턴트의 과중한 업무로 방문 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적합한 컨설팅을 위해서는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자간 공통 문항 결과에서는 계약기간(답변: 연간계약), 컨설팅 적정 수단(답변: 방문), 방문 시 컨설팅 시간(답변: 2~3시간)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방문 시 컨설팅 시간을 연장하기를 원하였다. 컨설팅 공급자(컨설팅업체, 컨설턴트)와 수요자(농가)

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계약금 결정방법(답변: 가계약 금액컨설팅 내용과 질)과 현재 정부 보조금 지원(답변: 적정확대)이었다.

주요어 : 과채류, 실패, 설문조사, 컨설팅

사 사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인 용 문 헌

1. Choi, J.M. 2002.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consulting project for agriculture management (in Korean).
2. Kim, J.H. and D. Heo. 2001. Results and problems of consulting market for agriculture management: case of management in hog raising. Rural Economy 24:53-72 (in Korean).
3. Kim, J.H. 2001. Strategies to improve farm management consulting practice. J. Agri. Sci. Chungnam Nat'l Univ. 28(1):41-47.
4. Kim, J.H. 2002. Analysis on character and prices of consulting market for agriculture management. Rural Economy 23:1-14 (in Korean).
5. Lee, D.H. and J.H. Kim. 2003. Analysis on farm consulting reception wit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J. Agri. Sci. Chungnam Nat'l Univ. 30(1):102-113.
6. Lee, S.D. 2007. Future in consulting and consultant in horticultural industry. Master's thesis in Sangmyung University.
7.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FAFF). 2005. Improvement scheme of consulting project for agriculture management (in Korean).
8.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FAFF). 2006a. Consulting support for agriculture management: 2006 guideline for project enforcement (in Korean).
9.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FAFF). 2006b. Consulting support for agriculture management: 2007 guideline for project enforcement (in Korean).
10. Oh, D.M. and Y.C. Choi. 2000. Measures for activating cyber agriculture consulting. J. Kor.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7(2):289-293.